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2019. 02. 25 <제24호>

CHINA WATCHING

미중 전략경쟁의 성패는 과학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정책 제언

미중 전략경쟁의 시기에 한국은 중견국의 국가정체성에 기반하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자유무역 질서, 평화추구 국가, 자존감을 유지하는 국가상을 추구해야 함

-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한국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미중 선택의 압박을 받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음
- 중견국의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의 최소화가 되어야 하며, 국익의 실현보다는 Risk 관리가 더 중요
-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제안함
- 당장은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자본 자유의 극대화보다는 공공성·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특정 가치는 우리 내부의 당연 규범일지라도,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중국과 대립 지향보다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하는 방향 설정 필요

- 국내 일각에서는 냉전의 유산, 미중 전략경쟁의 승패를 예단, 체제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강조하는 시각이 존재.
-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주요한 당사자이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우리와 유사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없이 한국의 경제발전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미중 전략경쟁은 중국과 관련하여 도전요인 못지않게 한국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도 확대 가능
- 추후 중국과의 관계는 '이익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간 분업과 협력구조를 새로이 창출하고, 성공적인 한중 경제발전 모델이 가능하도록 추동.
- 중국은 현재 북중 협력 강화를 추진. 한반도 균형 정책에 입각하여 한국과 갈등 상황 불원. 이 기회를 활용하여 이어도 등의 공역이 국제분쟁화하기 이전에 해양경계 획정 문제 등 분쟁 사안을 과감히 제기하고, 조기 타결할 것을 요청 필요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로드맵 구성과 위기관리를 위한 1.5트랙 차원의 전략성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미중 전략경쟁의 시기에 한국은 중견국의 국가정체성에 기반하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자유무역 질서, 평화추구 국가, 자존감을 유지하는 국가상을 추구해야 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로드맵 구성과 위기관리를 위한 1.5트랙 차원의 전략성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3. 미중 전략경쟁 전망

핵전쟁의 시기 "공포의 균형" 혹은 적어도 "최소억제역량"은 강대국 간의 전면 전쟁을 불가능하게 하였음. 아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는 이 균형을 위협할 지도 모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전망은 미중 간에 존재하는 대규모 살상능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혁신과 그 함의 자체만으로도 향후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이라는 옵션을 선택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임.
- 중국의 양자분야에서의 역량, 인공지능, 혁신적인 물류공급체계, 초고속 미사일의 개발 등의 기술 혁신이 얼마나 더 진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호함 자체만으로도 전쟁 억제효과가 분명함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 향후 동아시아 질서를 예측해보면 미중 전략경쟁과 혼돈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임. 여기서 다만, 시간이란 변수를 넣어보면 점차 혼돈 상황은 새로운 블록화 형성을 통한 세력균형의 질서로 진전될 개연성이 커 보임

- 이 시기 세계는 극단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 있고, 한국은 선택의 압력에 크게 직면할 것임.
- 이제 세계는 미중 경쟁이 일상화되고, 미중은 경쟁의 프리즘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줄서기를 강요할 것이기 때문임.
- 다만, 과거 냉전시기와 달리 미중의 흡인력이 과거 미소의 흡인력에는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며, 여타 국가들은 당장 미중의 궤도에 올라타기보다는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고심할 것임.
- 대신 두 소용돌이가 부딪쳐 쏟아내는 파편과 폭풍우는 주변 어느 누구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음을 배제하지 못함. 그만큼 신중해야 할 시기임.

우리로서는 그간의 안미경중(安美經中)이나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전략이 모두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중장기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승패는 각자 세계를 구성할 내구 역량과 기술 혁신의 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미중은 각자 자신의 영향권과 생활권을 구축해나가는 데 집중할 개연성이 다대. 향후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로 '팍스아메리카'나 '팍스시니카'가 아닌 미중이라는 거대한 두 축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양분될 수도 있다는 것임.

안미경중(安美經中)이나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전략이 모두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향후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로 '팍스아메리카'나 '팍스시니카'가 아닌 미중이라는 거대한 두 축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양분될 수도 있다는 것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편집인 서민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출판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북한과 "대항적 공존"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 한미동맹의 유지에 오히려 유리함.

Post-비핵화 국면에 대비한 플랜 B도 준비하여야 함

-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로 미국의 역내 군비경쟁 강화 가능성 주목. 미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배치 시도 가능성과 그 영향도 주시할 필요. 이는 동북아 전략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사안으로 그 향배를 지속 관찰하고 대비책 강구가 필요.
- 미중 갈등의 심화는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슈를 다 중단시킬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을 지녔고 남북한은 다시 그 갈등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수 있음.
- 이에 대비한 플랜 B의 준비도 필요한 시점임. 그 핵심은 남북한 사이에 "공포의 균형"을 이룩하고 북한과 "대항적 공존"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 한미동맹의 유지에 오히려 유리함. 우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재점검하라는 제안임.

내용 분석

1. 미중 전략경쟁의 본질

2017년 12월 출간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 strategic competitor," "현존 국제질서의 도전자: revisionist"로 규정

- 미국의 주류는 이미 그간 40년 이상 지속된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이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평가. 특히 2005년 공식화한 헤징(hedging)이라 부르는 "포용적 견제"전략이 이미 그 전제를 다 소진했다고 판단.
- 트럼프의 대결적인 대중 정책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강대국화 전략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미국 국민과 전문가들의 점증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 그리고 워싱턴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고른 지지를 받고 있음.
- 중국의 부상 속도는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이나 서방의 가치나 제도에 유사한 "us"가 아니라 그들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them"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들어 본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은 더 이상 무역 영역에 국한하여 이해하기는 어려운 실정

- 미중 무역 분쟁은 고립적인 사안에 대한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패권 경쟁의 일부라는 시각이 우세
- 무역 분쟁은 점차 군비 경쟁, 이념 갈등, 규범과 제도 갈등, 기술 전쟁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며, 비록 up & down이 존재하겠지만 미중 경쟁과 분쟁의 일상화를 목도할 것임

시진핑 시기 중국은 강한 민족주의 정서에 입각한 "초강대국화 전략" 추진

-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된다는 "중국의 꿈"을 국가 목표로 제시. 이를 자신과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 기반으로 활용.
-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하드 파워'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비충돌적·문명사적 초강대국화 전략 추진. 트럼프의 압박이 시작된 이후 굴복하기보다는 과거 혁명전쟁시기와 같은 "장기전 태세" 돌입.
- 2015년 5월 새로운 중국 특색의 국가산업경제발전 전략으로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을 공표. 이 발전 전략에 의하면 2025년까지 ICT역량과 결합하여 제조업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2049년까지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이 된다는 계획임

주목할 것은 미중이 다 같이 자국 우선주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 귀결이 블록화 추진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다대함

- 시진핑은 중국 특색의 발전방식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존의 경제·사회·정치·군사 체제 담론에는 물론이고 제4차 산업혁명의 담론에도 적용하면서 구체화하고 있음.

중국의 부상 속도는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이나 서방의 가치나 제도에 유사한 "us"가 아니라 그들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them"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짐.

- 중국 중심주의적 인식과 전략의 강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혁명의 특색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과 결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또 다른 중국식의 버전. 미중은 대규모의 전쟁으로 승패를 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싸우기보다는 헤어지기(decoupling)를 시도할 개연성이 다대함

미중은 대규모의 전쟁으로 승패를 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싸우기보다는 헤어지기(decoupling)를 시도할 개연성이 다대함

2.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혁신 경쟁

미중 전략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는 기술혁신 경쟁에서 나올 개연성이 다대함

- 과거 세계 패권경쟁의 승패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시대를 변화시킬 동력을 확보했는가에 달려있었음. 석탄·철의 활용과 총포의 발달, 석유산업의 발달과 핵 시대의 개막, 정보화 시대의 등장 등이 그 예들.
- 이제 새로운 패권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 맞는 기술을 선도하고, 이를 안보역량에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에 달려있음.
- 문제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기술들의 영역은 "승자독식"의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점임. 선두를 차지한다는 것은 관련 영역에서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표준과 규범을 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향력의 범위는 세계적이며, 후발 주자들이 이를 역전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함.
- 이 기술혁신에서 뒤질 때, 어느 패권국가나 기업도 순식간에 그 존재가 위협받을 수 있음. 이런 차원에서 현재 미중 간에 전개되고 있는 기술혁신과 관련한 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패권 경쟁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일 수 있기 때문임.

미중 전략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는 기술혁신 경쟁에서 나올 개연성이 다대함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게임 체인저"로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과거 산업혁명과 비교해, 중국이 비교적 서구와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인식과 또한 이들을 추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음.
- 2017년 기준 평가에 의거해 최병일 교수는 주요 10대 산업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평균 1.3년이라고 하였음.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정동 교수가 언급한 "공간의 힘으로 축적의 시간을 압축한다"라는 의미가 실감나게 중국의 추격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
- 새로운 산업의 핵심은 대규모 데이터의 획득과 처리, 인공지능 발전 분야인데,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이 분야에서 사생활 보호라는 제약을 받는 서방국가를 넘어 이미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음.
- 그밖에도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중시되는 차세대 정보통신산업(5G), 혁신적인 물류공급체계, 사물 인터넷, 독자적인 GPS 체제 구축, 슈퍼컴퓨터의 독자 기술 구현, 양자분야에서의 역량, 초고속 미사일의 개발 분야에서 이미 미국과 거의 대응하거나 추월할 가능성을 보여줌.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게임 체인저"로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미국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중국에 전반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정설임. 그러나 그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음. 특히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주요 기술 영역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미국의 불안감을 크게 가중시켰음

-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기술혁신과 발전에 대해 극도의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탈취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미중 전략경쟁의 시기에 미국은 미국의 패권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국의 기술 부문에서의 진전을 좌절시키거나 발전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노력은 지속할 것임
- 최근 5G 기술의 선두에 서 있는 중국 화웨이와의 협력을 차단하려는 국제연대를 대폭 강화중이며, 화웨이와 협력중인 LG에 대한 미국정부의 배제 공표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미중 간의 전략·기술전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으며 장기적이며, 이 영역은 상호 규율과 조절이 어려움. 어느 한 영역의 새로운 혁신은 적어도 '게임체인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의 옵션을 크게 제약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임.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향배가 중요하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임.